



성공회 영등포 성당

St. Christopher's Anglican Church

(07299)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430 ☎ 02-2671-6290, 2633-8877(팩스) © stchris@anglican.kr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2022년 5월 15일 부활 5주일 · 다해 · 백색

제57-19호

서로 사랑 - 실패와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요한 13:31~35)

“사랑 —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자나 깨나 그 사람 생각이 떠나지 않고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게 되며 몸부림치고 싶어지는 마음의 상태. 이루어지게 되면 하늘이라도 오를 듯한 기분이 된다.”

몇 년 전 우리나라 극장에도 개봉했던 영화 <행복한 사전>에 나오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사랑에 관한 수많은 책과 자료를 골똘히 살펴서 단순 명쾌한 설명을 담아 사전을 펴내려는 수고 끝에, 그 단어를 삶으로 체험하면서야 그 낱말표어가 생명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마음을 들뜨게 하여 “하늘에 오르는 기분”을 마련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 독서에 나오는 대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 새 땅의 기쁨을 누리고, 새 하늘로 오르는 희망의 환시는 모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에서 비롯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설레고 들뜬 사랑 뒤에는 실패와 상처의 어둠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수난 직전에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만찬에 이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 가리옷 유다가 당신을 배반하고 “나간 뒤에” 오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제자들은 서로 사랑과 상호 신뢰를 확인하고 다짐하며 스승의 몸과 피를 나누었지만, 그중 한 명은 곧바로 배신의 길을 걷습니다. 뒤이어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거나 부인할 것입니다.

자신의 복락을 바라며 우리가 다짐하는 신앙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 맹세하는 사랑은 연약합니다. 굳은 신앙으로 성찬례에 함께한 경험도 서로 배신하는 실패를 막지 못하고, 거친 풍파가 넘실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약속하는 사

랑의 감정은 흔들리고 상처 입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걷는 실패와 상처를 아십니다. 이 처지를 아신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의 위로입니다. 이러한 이해와 위로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자신을 향하고, 자기만 바라봐 달라는 사랑은 ‘옛 것’입니다. ‘새 것’은 자기사랑이 가져온 실패와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타인에 눈을 돌릴 때, 타인과 더불어 ‘서로 사랑’을 마련할 때 일어납니다. 이때라야 새로운 생명과 삶이 하늘과 땅에 펼쳐지는 약속이 이뤄집니다.

이 약속을 견디어 사랑을 이뤄내는 조건을 눈여겨 보십시오. 유다는 배신했습니다. 배신은 거대한 결단이 아닙니다. 손쉬운 해결책을 찾으려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한 실패를 받아들이며 함께했던 기억 ‘안’에 머물렀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과 통회를 안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모든 기억과 경험을 괴롭도록 버리고 담금질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하느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새로워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삶을 자기 몸으로 재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우리 삶의 실패와 절망 속에서 우리는 미안함과 죄스러움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랑으로 우리는 ‘자나 깨나 여전히 그리워하고 몸부림치며’ 서로에게 머물며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 위로와 격려의 사랑을 더 넓은 세계에 펼치는 일이 ‘서로 사랑’의 선교 명령입니다. 헤아리시고 품어주시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 타인을 초대하며, 자신을 용서하고, 서로 용서하는 용기를 북돋는 일이 신앙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 삶에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주낙현 신부)

서울교구장 이경호 베드로 주교

관할사제 주낙현 요셉 신부

보좌사제 구균하 요나로렌스 신부

신자회장 김종희 요셉

사제회장 차기성 안드레

교회위원 구정에 변금숙 서남철 신환중 이성식 이평환 조진성 추경민 한재업

원로위원 서세룡 윤희애 송갑호 추형두 이충웅 이용해 박해웅 윤용환 이종한

보혈조력 박해웅 신환중 윤영옥 윤용환 이용해 이종한 차기성

성가대 지휘 김민숙 선창 한재업 반주 고아랑 심민경

제단꽃꽂이 이경희 이난희 이광자마리아

■ 전례와 사목

1. 부활절기 전례 안내

부활절기 전례곡은 B곡 시편곡조는 앵글리칸 찬트(성가 49장)입니다. 부활절기 주일 전례에서는 니케아신경을 외웁니다(기도서 249쪽, 성가 76장).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개인 성가책을 지참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활절기 평일 아침 성찬례 안내

평일 아침 성찬례를 오전 6시 30분 화·수·목·금에 성전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로 신앙 생활에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3. 가정 심방 일정 연기

사목단 사정으로 5월 중 심방 일정과 신청 접수를 연기합니다. 구역장과 인도자 모임을 거쳐 다시 일정을 조정하여 안내하겠습니다.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

1. 구역장과 인도자 모임

2022년 5월 15일(다음주) 11시 성찬례 후 성전 구역장과 인도자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스승의 날 감사

교회학교(어린이, 청소년)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구정애, 김민숙, 김태영, 유희주, 이정주, 정명옥, 정희진, 추경민 선생님)

교회 안에서 신앙의 교사인 성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회 안에서 교육 현장에서 애쓰신 모든 선생님들과 스승님들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3. 연중 봉헌 서약 접수

봉헌서약서를 연중 접수합니다. 봉헌의 신앙에 관한 안내문을 잘 읽으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성교회 성가책 판매

주일 성찬례와 전례 중에 사용할 개인 성가책을 판매합니다. 기도서와 같은 크기이며 가벼워서 휴대하기 좋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개인 성가를 사용하고 전례 중에 찬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정가 2만원입니다.

■ 활동단체 소식

◆ 어머니회 물품 판매

- 다시마 1kg(1박스) 1만7천원 - 참기름 1병 1만원

- 미역 1kg(1박스) 2만5천원 - 들기름 1병 1만1천원
- 고사리 주문 1봉 2만6천원 - 옛기름 600g 4천원

■ 교우 소식

◆ 꽃봉헌

지난 주일(5/8) 가정주일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G.F.S.회에서 나오미회와 베드로회 어르신들께 감사의 꽃을 선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생일을 축하합니다

윤지훈(15일) 손정자(17일) 김일성 이정화(19일)
고홍(20일) 노현정(21일)

◆ 혼배 공시 ◆

신랑: 김정태(베네딕트) 김중희·김예중의 아들
신부: 최원이(드보라) 최호용·임경림의 딸
2022년 5월 28일(토) 낮 12시 서울주교좌성당

※ 현금 액수는 인쇄 종이 주보에만 실리며, 전자문서(이메일, 홈페이지) 주보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 십일조 · 월정헌금

고창현 김중희 박영수 변금숙 서영숙 선병순 송미경 신명식
유윤근 윤선구 윤영옥 이성식 이충용 전유성 차기성 차영호
추형두

■ 주정헌금

김경아 김삼홍 김요한 서정민 선병순 송미경 송미정 송종의
신희숙 윤영옥 윤영자 윤옥랑 이정희 이광자 이정숙 이종환
전병도 정명옥 정은숙 진현경 차기성 한부순

■ 감사헌금

박성준 윤영옥(평일미사) 윤지훈
이복련(평일미사) 한부순

■ 기타헌금(미사 예물 · 주일학교 · 학생회 등)

목적 헌금

■ 나눔의집헌금

주창남

■ 극기헌금

신동훈 추경민

대한성교회 영등포교회 봉헌 안내

■ 십일조(월정헌금) 일반·감사 등 봉헌
기업은행 083-082654-04-015

함께 회복하는 아름다운 전례

우리는 이제 회복의 시간을 살아가려 합니다. 신앙과 전례와 교회 선교 안에서 이 회복 운동은 우리 삶을 복되게 하며, 세상에는 신앙의 아름다움과 신뢰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성공회 전통은 <감사성찬례>를 드리며 우리 신앙을 빚어나갑니다. 주일 예배인 <성찬례>는 하느님께 감사하는 예배이며, 하느님 안에서 한몸이 되는 신비를 축하하며 누리는 교회의 거룩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전례’(liturgy)라고 하는데, ‘공동체의 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공동체로 살아가려면 언제나 예절이 필요합니다. 전례는 모두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예절의 훈련이 되는 셈입니다. 세상에서 점차 예절이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전례 예절로 자신을 훈련하여 세상에 신앙의 품위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부터 ‘전례 예절’을 잘 지켜서, 교회가 이루는 아름다운 환대와 친교를 잘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1. 전례가 시작되기 전

- 전례 시작 10분 전까지 성전에 들어와 제대 가까운 자리에 앉습니다
- 조용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 감사성찬례 시작 전 조용하고 바른 자세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 성전 안에서는 사사로운 대화나 소음을 내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휴대폰 벨이 울리지 않도록 전원을 끕니다. (하느님은 예배 중에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지 않으시니까요.)

2. 전례가 시작되면

- 전례가 시작되면 신문이나 다른 소식지를 보지 않습니다. 주보의 경우, 전례 순서만 참고합니다.
- 전례 시작 후에는 중앙 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옆 통로를 이용합니다.
- 늦게 오더라도, 전례 순서(독서, 기도 등) 진행 중에는 통행하지 않고 입구에서 잠시 기다립니다.
- 자리를 찾을 때는 순서와 순서 사이에 움직입니다.
- 성가와 계응은 큰소리로 함께 합니다.

3. 전례를 마칠 때

- 전례가 모두 끝난 후에 성당을 나가며, 후주도 끝까지 듣습니다. (주일 전례의 마지막 순서는 ‘파송성가’입니다.)
- 성전 밖에서 성직자와 인사를 나눕니다. 상세한 안부와 문의는 교우들과 인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에 나눕니다.
- 친교 공간에서 교우들과 서로 안부를 물으며 친교를 나눕니다.
- 처음보는 새로운 교우에게는 먼저 자기 이름이나 신명을 소개하고 환대합니다.
- 주보는 집에 가셔서 주중에 참조하거나 이웃에게 전도지로 활용합니다.

† 기도해 주세요 †

▣ 교회를 위하여

- ◆ 영등포 성당의 신앙 회복, 전례 회복, 교회 회복을 이루도록
- ◆ 지역 사회와 협력하도록
- ◆ 새교우를 환대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 ◆ 코로나 상황을 넘어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하여
- ◆ 사회와 정치 안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을 위하여
- ◆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하여

▣ 가정을 위하여

- ◆ 주간 평일에도 성무일도를 바치는 가정이 되도록
- ◆ 가정의 건강과 화목을 위하여

▣ 어려운 교우와 환자를 위하여

한부순 손정자 박길자 정상운 권영달 김경옥 이명길 윤길자
이현숙 채옥순 최종주 신희숙 신정자 유호애 김복근 민병화

▣ 임 신 정셋별 ▣ 군복무 양승환 김예찬 ▣ 유 학 이재성(독일)

▣ 장기출장

박지혁 김슬기 윤상기 한지원(미국) 서한얼(캐나다)

감사성찬례 1형식 (기도서 244-272쪽)

✧ 기도서 ♪ 성가

실시간 동영상 오전 11시 www.youtube.com/성공회영등포성당

개회예식

입당성가(선다) ♪ 212장 다함께
정심기도 ✧ 244 집전자
죄의고백 ✧ 291 다함께
영광송 (B곡) ✧ 246 / ♪ 75 다함께

말씀의 전례

본기도 집전자

사랑의 주 하느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느님의 사랑을 찬양하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1 독서(읽는다) 사도 11:1-18 말은이
시편 시편 148편 다함께



- 1 알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 그 높은 데서 찬양하여라.
2 그의 천사들 모두 찬양하여라.
○ 그의 군대들 모두 찬양하여라.
3 해와 달아 찬양하-고
○ 반짝이는 별들이 모두 찬양하여라.
4 하늘 위의 하늘들,
○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 찬양하여라.
5 주님의 명령으로 생겨났으니,
○ 그의 이름 찬양하여라.
6 지정해 주신 자리 길이 지키어라.
○ 내리신 법은 어기지 못한다.
◎ 영광이 성부와 ○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 | 아-멘

2 독서(읽는다) 묵시 21:1-6 말은이
복음환호송(A곡) ✧ 291 / ♪ 55 말은이
복음서(선다) 요한 13:31-35 말은이
설교(읽는다) 말은이
니케아신경(선다) ✧ 249 다함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 251 말은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선다) ✧ 292 다함께
봉헌성가 ♪ 500장/나오미회 다함께
예물기도 ✧ 292 말은이
성찬기도 (1양식) ✧ 257
거룩하시다 (B곡) ✧ 257 / ♪ 77 다함께
기쁨환호송 (1양식) ✧ 259 / ♪ 62 다함께
마침영광송 ✧ 259 / ♪ 64 다함께
주의기도 ✧ 269 / ♪ 65 다함께
성체 나눔 ✧ 269 다함께
하느님의 어린양 (B곡) ✧ 270 / ♪ 78 다함께
영성체 (읽는다) ✧ 270
영성체 성가 성가대
영성체 후 기도(선다) 다함께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가 부활의 신비를 나타내는 이 성사를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사랑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 사랑 속에 한마음이 되게 하시어, 부활의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광고(읽는다) 말은이

파송예식

축복기도(선다) ✧ 292 집전자
파송 ✧ 272 말은이
파송성가 ♪ 561장 다함께

	다음 주일 성찬례 (5월 15일)		다음 주일 성찬례 (5월 22일)	
	9시	11시	9시	11시
집 전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주낙현신부	구균하신부
설 교	주낙현 신부	주낙현 신부	구균하신부	주낙현신부
1독서	우영현	김종희	우영현	한재업
2독서	서정민	박남미	서정민	이복련
대 도	신명식	이성식	신명식	이정숙
십자가	윤용환	차기성	박해웅	이종한
다음 주일 5월 22일	전례독서 사도 16:9-15 시편 67 묵시 21:10, 22-22:5 요한 14:23-29 성 가 입당 225장 봉헌 377장 영성체 성가대 파송 461장			
교 회 청 소	5월 21일 청년회 김태영 한예지 김건우 조용현 송종익 신승지 정민경 정희진 김예찬 우영현 하원재 김경찬		5월 28일 베드로회 고흥 박해웅 유윤근 윤용환 이성빈 이용해 이종웅 추형두	